

CHANGE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5 SEPTEMBER
Vol.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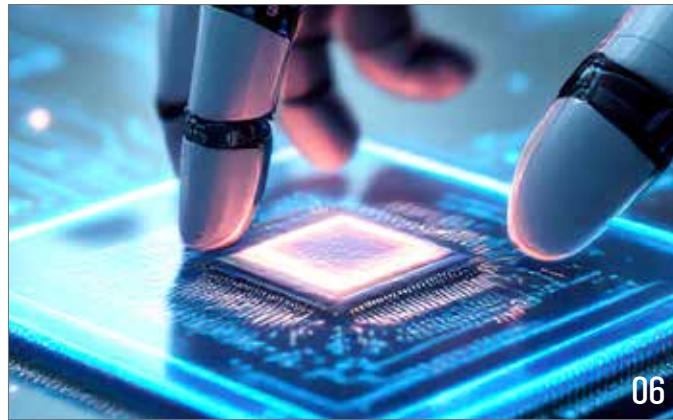
찬란한 여름을 보내고
황금 들녘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CONTENTS

Vol
272



04



06



08



12



22



26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스테이블코인,
금융업의 기회 Part.2

06 Market Reader

AI 혁신의 시대,
AI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08 Team Story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길잡이!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10 Client+

“고객의 가전 Life를 평생 케어한다”
생활 밀착형 가전 전문점, 롯데하이마트

12 Expert's Advice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16 인재양성소

‘People First’
우수 인재 격려하며 성장 지원!

20 People First

힐링 타임!
법인 지원 콘도에서 리프레시 만끽!

22 마음온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O Green’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우아한 거절

26 心 Care

24시간 완벽한 AI 상담사의 그림자

28 Samjong News

삼성KPMG 프로페서 위촉식 외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 표지에는 황금빛 들녘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금빛 물결이 여러분께 행복한 기운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스태이블코인, 금융업의 기회 Part 2

글로벌 결제 환경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경제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통화당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사업자들도 스테이블코인 시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리즈 2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문가를 통해 금융업계의 동향과 기회를 살펴보려 한다.



국내 금융권·빅테크·핀테크 23개사 이상이 275건이 넘는 상표를 출원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자체 생태계와 가상자산거래소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공동 원화 연동 프로젝트,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핀테크·스타트업도 해외 제휴를 통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약 80% 이상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차익거래, 유동성 공급 등 투자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365일 실시간 결제를 가능케 하며, 국제송금 비용 절감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등 기존 금융의 한계를 보완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기술·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사용 수요 창출·생태계 확장·글로벌 연계·규제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신속한 시장 진입

빅테크, 금융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확장성 있는 모델을 결제·게임·유통·수출입 등과 연계해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강자의 점유율이 강화되므로 초기 선점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서클(Circle) 사례처럼 국제 운용 의존은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 발행으로 차별화가 어렵다. 따라서 발행사는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협력으로 차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성공 도입 전략

1 확장성 & 속도	2 생태계 기반 인프라	3 신뢰 & 컴플라이언스	4 글로벌 확장	5 중장기 확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산업 연계 (결제·게임·유통·수출입) • 초기 시장 선점 중요 (네트워크 효과) • 단순 발행 한계 → 특화 전략 + 민간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환매까지 전주기 모델 • 멀티체인 전략·스마트 컨트랙트·커스터디 솔루션 • 금융망 연동 + 민간 협력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안정성 유지 (준비금, 상환 의무) • 실시간 증명·검증·리스크 관리 • AML·KYC 내부통제 + 독립감사·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송금·다국적 결제 기회 • 해외 규제 준수 + 현지 맞춤 서비스 • 글로벌 결제망 기술 표준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 토큰증권·디지털 신원·데이터 관리 • 국제 규제·표준 대응 + 글로벌 협력 • 사업 다각화로 지속 성장 기반 확보

Source: 삼정KPMG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협업 과정에서 파트너십 약화·소비자 접근성 제한 우려가 있어, 기존 고객 락인(lock-in) 효과와 신규 수요 창출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 생애주기·생태계 기반 인프라 확충

발행·유통부터 환매·소각까지 전주기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운영·보안·설계 전반에서 신뢰성 높은 기술 프레임워크가 요구되며,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은 멀티체인 전략으로 다양한 환경을 연동할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금 관리, 커스터디, 결제·정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금융망과 연동해야 한다. 또한 규제 당국·금융기관·기술기업과 협력해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신뢰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시장 신뢰'이며, 발행·운영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인허가 기준 충족과 온·오프체인 검증 시스템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리스크 관리, AML·KYC 이행은 필수이며, 전문 인재 확보와 협업, 규제 대응 및 시장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확장 전략 고도화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와 송금 편의성으로 글로벌 결제망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가상자산 급여 수령 근로자 비율은 9.6%로 증가했고, 대부분이 USDC·USDT를 사용한다. 주요국은 라이선스와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제휴 확대와 글로벌 규제 대응, 기술 표준 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 디지털사업 확장 전략 수립

디지털자산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은 금융·결제, 수탁, 토큰 증권, 공공·데이터 관리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며, 송금·보관·기관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규제 대응과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결제망 연동·토큰화 플랫폼·디지털 신원 인증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내외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기업 경쟁력과 국가 지급결제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입과 확장을 위해서는 시장 신뢰 확보, 기술 안정성, 규제 준수, 글로벌 연계성, 중장기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전략은 단순 금융 혁신을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 신뢰와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CONTACT US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 황태영 상무
Tel. 02-2112-0490
E-mail. taeyoungwang@kr.kpmg.com



AI 혁신의 시대, AI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지난 7월 16일, 삼정KPMG는 'AI Summit(서밋) 2025'를 개최해 'AI 혁신의 시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 흐름에 따른 CFO의 전략적 역할 변화와 재무 부문 내 AI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AI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AI, 기업 경쟁력 강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인공지능)라고 할 수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으며 그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발전은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AI 활용에 비해 기업 내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MIT의 최근 보고서「생성형 AI의 격차: 2025년 기업 내 AI 현황」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한 기업 중 95%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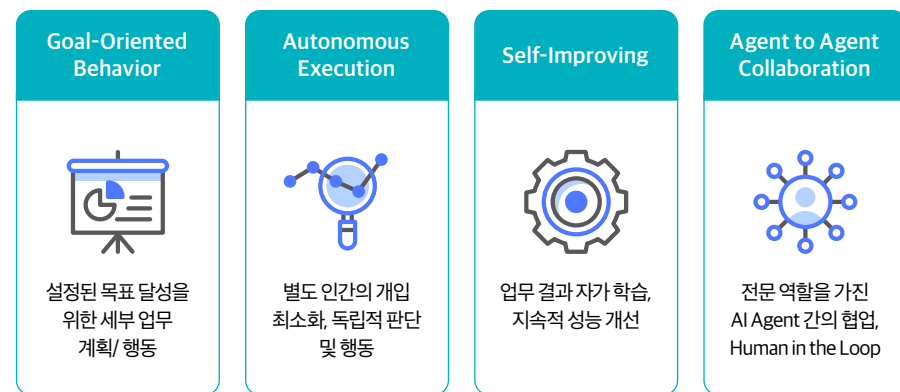
AI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nterprise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략적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현재 기업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경영 아젠다라 할 수 있다.

기업을 위한 Enterprise AI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AI Assistant'라는 업무 보조 도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AI를 통한 업무 혁신의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을 위한 Enterprise AI는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AI와도 협업하는 'AI Work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AI Worker'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업무를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AI가 실행할 업무 프로세스(AI Workflow), 기업의 고유한 업무 지식(Domain Knowledge), 그리고 기존 시스템 및 업무 도구와의 인터페이스(System

KPMG가 생각하는 Enterprise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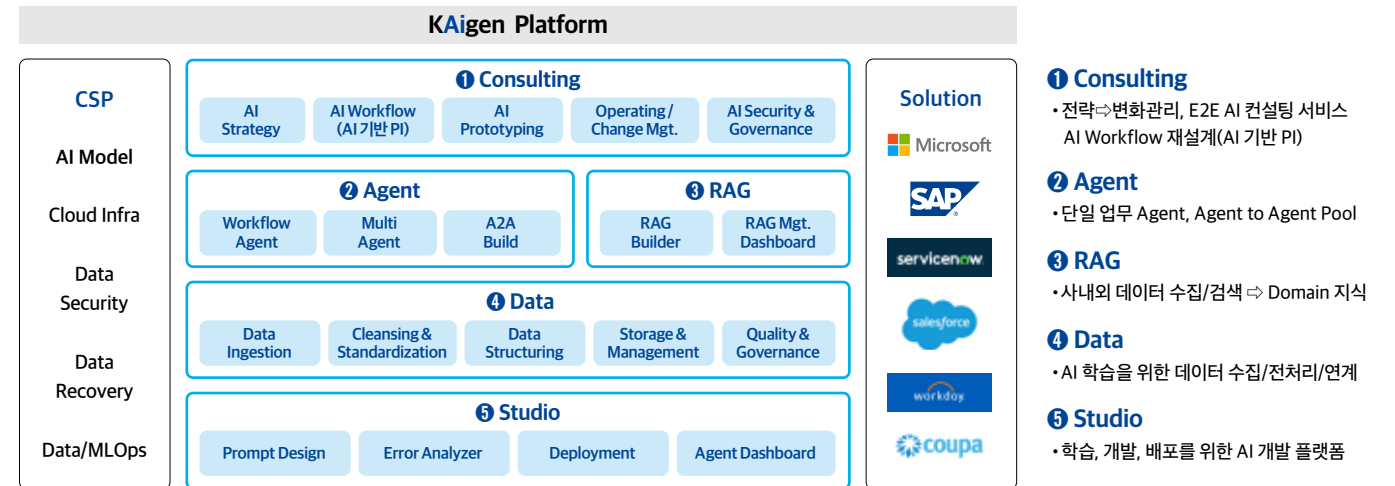
AI는 단순 '조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인간 뿐 아니라 AI 간 협업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ource: 삼정KPMG

KAigen Service Architecture_Agent Platform

800+ Global Use case와 KPMG 산업 지식 기반으로 준비된 AI 시나리오, Agent Core, 시스템 I/F모듈을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AI Workflow 설계부터 개발 Studio 제공까지 E2E 서비스를 제공한다.



Source: 삼정KPMG

Interface)가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AI Worker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성공적인 Enterprise AI 도입 위한 3단계 프레임워크

기업의 성공적인 Enterprise AI 도입을 위해 KPMG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핵심 가치 개선이 가능한 업무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AI 도입의 방향성과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식별된 업무 영역에 대해 AI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추진 영역에 대해 AI Workflow와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 이 단계는 AI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실행 과정이다.

셋째, 초기 도입된 AI의 성과를 평가한 후,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변화관리와 AI 거버넌스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AI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기술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다. Enterprise AI의 도입은 기업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로, 조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결국 기업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AI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업무를 개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 단기적인 업무 도구의 도입을 넘어 'AI Worker'를 동일한 임직원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임직원과의 협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즉,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구조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AI 서밋 2025'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MC분부
이준기 상무
Tel. 02-2112-0615
E-mail. jlee199@kr.kpmg.com

이윤범 S.Manager
Tel. 02-2112-3512
E-mail. yoonbeomlee@kr.kpmg.com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길잡이!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최근 금융산업의 핵심 화두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급부상했다. 지난 7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결제용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 글로벌 '디지털 달러'로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이슈를 모았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을 운영하며, 신속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통한 선제적 준비 필요

최근 국내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장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이 앞다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포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인프라와 금융시장 재편의 촉매제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제적인 준비와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능동적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 재편에 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장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금과 기술력,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춘 국내 민간 사업자가 확장성을 갖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주요 서비스

1. 사업전략/실행방안 수립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 고려하는 기업 대상으로, 초기 사업 구조 설계부터 실행 로드맵 수립까지 전반적인 전략 컨설팅 제공
- 시장 및 규제 환경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 제시
- 생태계 구축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 구조 설계와 실행 방안까지 포함,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2. 인허가 신청 지원

-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에 필수적인 각종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고, 관련 문서 준비부터 신청 절차까지 전 과정 전문적으로 지원
- 국내외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 바탕으로, 고객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 복잡한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 함께 제시

3. 시스템 구축 및 PMO

- 스테이블코인 활용 위해 기존의 절차와 시스템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문 제공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구축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기술 자문과 프로젝트 관리(PMO)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의 인프라, 지갑, 결제 연동, KYC/AML 모듈 등 핵심 구성 요소를 구조화하고, 외부 파트너 협업 관리부터 테스트 및 상용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일정 관리하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

스테이블코인 사업 올인원(All-in-one) 컨설팅 제공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행 로드맵까지 '올인원(All-in-one)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장 트렌드와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협업 구조 설계, 실행 방안까지 지원해 전방위적 추진 전략을 책임진다.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은 컨설팅, 감사, 세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그룹, 여신금융협회 등 다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KPMG 해외 오피스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연말까지 규제 및 입법의 윤곽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은 다양한 고객사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흐름에 관한 세션과 개별 사업모델 수립에 대한 자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발행인허가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인허가 신청을 위한 용역 및 스테이블코인 적용을 위해 기존 사업 영역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을 소개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든든한 파트너”

황태영 상무
taeyoungwang@kr.kpmg.com



“신뢰 기반하여 혁신 주도하는 팀”

최연택 상무
yeontaekchoi@kr.kpmg.com



“스테이블코인 세무에 관한 실마리 제공!”

최세훈 상무
sehoonchoi@kr.kpmg.com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입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팀은 NH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팀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어, 투자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뢰 기반의 혁신이야말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선도하는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 코인 거래에는 과세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코인 거래에 따른 상속, 증여, 법인세 과세는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최근 화두인 스테이블코인 역시 인기를 끈 만큼 세무적 이슈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삼정KPMG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리스크를 대비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전 Life를 평생 케어한다”

생활 밀착형 가전 전문점, 롯데하이마트

대한민국 가전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 롯데하이마트. 전국 310여 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1,700여 개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가전은 물론, 가전 구매 후 필요한 수리, 클리닝, 이사 재설치 등 고객 생애 주기별 맞춤 케어 서비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국내 대표 가전제품 전문점이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에는 ‘가전 라이프 평생 케어’라는 비전 아래, 고객의 생애 주기에 꼭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가전 전문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과 다양한 체험 통해 ‘고객 경험 강화’

롯데하이마트는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하며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물론, 다이슨, 로보락, 애플 등 상품 카테고리별 글로벌 Top 브랜드의 상품까지 판매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PB(자체브랜드)인 ‘PLUX’를 선보이며, 가성비 있는 일상 가전으로 새로운 PB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다.

매장도 상권별 특성에 맞춰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콘텐츠를 강화한 ‘경험형 매장’을 강화하고 있다. 체험 중심의 모바일 전문관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바일 전문관은 기존 모바일 매장보다 상품 구색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모바일 상담과

최적 요금 설계, 다양한 체험 공간을 선보여 모바일과 관련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가전 구매 시 가구·인테리어와의 조화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고객 트렌드에 맞춰, 가전과 가구·인테리어와의 통합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매장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객 평생 케어의 핵심, ‘하이마트 안심 Care’

가전제품은 구매 후 사용 기간이 긴 대표적인 상품군이다. 따라서 가전제품은 구매뿐 아니라 구매 이후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롯데하이마트는 수리, 클리닝, 이전 설치, 보증보험 등 ‘하이마트 안심 Care’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전 생애 주기 전반을 밀착 관리한다.

ASUS, 로보락, HP 등 170여 개의 주요 브랜드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 중 150여 개 브랜드는 전국 각지에 있는 11개의 자체 서비스 센터의 인프라를 통해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CS마스터’가 장비를 갖추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을 분해 및 세척, 살균 처리까지 해주는 ‘클리닝 서비스’,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보증보험’ 상품 등을 운영한다.

‘하이마트 안심 Care’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객 선택의 폭을 대폭 확장한 ‘하이마트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고, 6월에는 가전 구매 전후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 주는 ‘가전불편 점검 서비스’, 대형가전 구매 시 중요한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가전설치 사전점검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도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전 유통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ESG 활동’

롯데하이마트는 ‘가전 유통’이라는 본연의 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을 이어 나가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상품 판매, 물류, 서비스 등 상품 구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에 힘쓰며, ▲에너지 고효율 가전 강화 ▲차량별 배송 경로 최적화 설계를 통한 배차 시스템 고도화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 ▲수리 서비스 및 폐가전 회수를 통한 친환경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하이마트 안심 Care’ 서비스 ▲‘PC ON/OFF’ 제도 등 고객과 임직원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및 모니터링 등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체계와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7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1. 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
2.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
3. 롯데하이마트 PB ‘PLUX(플럭스)’, 1~2인 가구 고객층을 겨냥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4. 롯데하이마트 고객점의 모바일 특화 공간 MOTOPIA, 모바일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제공한다.
5.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고객점의 모바일 특화 공간 MOTOPIA에서 VR게임을 체험하는 모습이다.
6. ‘하이마트 안심 Care’ 서비스 중 하나인 클리닝 서비스, 클리닝 전문가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가전제품을 분해 및 세척, 살균처리한다.
7.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마트 구독’을 통해 국내 대표 가전 브랜드뿐만 아니라 로보락, 샤오미, 다이슨 등 글로벌 인기 브랜드까지 구독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대폭 확장했다.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에서의 협력,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서도 최대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 전문가를 통해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 관련 방안을 모색해 본다.

Q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됩니다.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은 상호관세 세율 인하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국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새롭게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미국은 7월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8월 7일부터 신규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분	한국	EU	일본	
경제규모(\$) ¹⁾	약 1.87조	약 19.41조	약 4.26조	
수출액(\$) ²⁾	전체	6,837억	약 2조 8000억	약 7,223억
	對美	1,278억	5,766억	1,482억
美 무역수지(\$) ³⁾	-660억	-2,365억	-685억	
美 수입시장 내 비율 ³⁾	4.03%	18.51%	4.54%	
상호관세율	종전(4/2)	25%	20%	24%
	협상 후	15%	15%	15%
	차이	10%p Δ	5%p Δ	9%p Δ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25% → 15% (10%p Δ)	27.5% → 15% (12.5%p Δ)		
철강/알루미늄 관세 ⁴⁾	별도 논의 진행하지 않아 50% 유지 예상	50% (쿼터 합의 관련 논의 중)	별도 논의 진행하지 않아 50% 유지 예상	
對美 투자금액 (\$)	3,500억 (경제규모 대비 21%)	6,000억 (경제규모 대비 3%)	5,500억 (경제규모 대비 13%)	
주요 협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미국에 \$3,500억 투자 및 \$1,000억 규모 에너지 구매(LNG 등)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 한국 시장에 무관세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향후 3년에 걸쳐 미국에 \$6,000억 투자 및 \$7,500억 규모 미국산 LNG 구매 단,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일부 병입품, 제약, 비행기 부품, 반도체 장비는 관세 면제 또는 별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미국에 \$5,500억 투자 자동차, 트럭, 농산물(쌀 포함) 시장 개방 미국산 농산물(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연료 등) 수입 확대 및 군수, 항공기 구매 약속 	

Source: 삼정KPMG
 Note: 1) IMF 2024년 명목/ 2) 2024년 기준, Eurostat, 한국무역협회/ 3) 미 상무부, KOTRA/ 4) 7/31 정책실장 브리핑

또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번 협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 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문

Tel. 02-2112-7448
 E-mail. taejookim@kr.kpmg.com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용어를 알아보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기대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MZ세대들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말차코어에 대해 배워본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승부수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담은 '마스가'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2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25일(미국 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관세 협상에서 이를 제안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것으로, '마스가(MASGA)'는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거나 설립하고, 한국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어요. 조선 3사는 정부와 조선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마스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미국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따내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해요.



건강하고 감성적 라이프스타일 MZ세대 트렌드 '말차코어'

최근 일본산 '말차'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은은한 초록빛과 건강한 이미지가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해 패션·식음료·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말차코어'인데요, 말차(Matcha)와 핵심을 뜻하는 코어(Core)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어'는 특정 스타일을 강조할 때 붙는 표현으로, 등산복 패션의 고프코어(Gorp-core), 발레리나 감성의 발레코어(Ballet-core) 등이 그 예입니다. 최근에는 말차 음료와 함께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배치해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 '말차 라이프스타일'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말차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요. 올해 1월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더 비즈니스 리서치'는 세계 말차시장 규모가 2024년 38억 4,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1.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9년에 64억 8,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국산 말차 수출도 성장세입니다. 경남 하동군은 2017년부터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말차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말차 100여t을 미국·남미·유럽 등지에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의 본고장인 전남 보성군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어요. 보성군의 카페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말차를 이용한 아이스크림과 버블티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16

인재양성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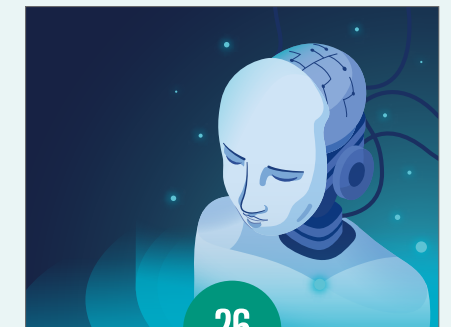
'People First'
우수 인재 격려하며 성장 지원!



22

People First 20

힐링 타임!
법인 지원 콘도에서 리프레시 만끽!



26

마음온도+ 2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O Green'

이동규의 두줄칼럼 24

우아한 거절

心 Care 26

24시간 완벽한 AI 상담사의 그림자

Samjong News 28

삼성KPMG 프로페서 위촉식 외

'People First' 우수 인재 격려하며 성장 지원!

삼정KPMG는 'People First'를 추진하며 인재들을 격려하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의 주니어 집중 양성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성인재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시험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시상식을 열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Global Elite Program(GEP) 16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GEP 우수자 79명 선정 ... 내년에 런던 해외연수 떠나

지난 8월 27일, 삼정KPMG 본사 교육장에서 'GEP 16기 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GEP 16기는 2022년에 입사한 공인 회계사 및 공채/수시 컨설턴트로서, 공인 회계사의 경우에는 한공회 연수 성적과 감사 직무교육 성적, 업무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컨설턴트인 경우 업무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 79명을 GEP 우수자로 선발했다. GEP 우수자들은 김교태 회장의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GEP 16기로 선정된 79명 전원은 2026년 5월에 2주간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Global Elite Program(GEP)'이란?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삼정KPMG만의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3년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니어 전문가들이 직 무역량, 글로벌 마인드, 전문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며 신뢰, 성장, 전문성을 갖춘 Everyone A Leader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우수자들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상식 및 영국 런던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GEP 16기 우수자 축하드립니다!"

[GEP 16기 우수자 명단 - 본부별 성명 오름차순]

김대훈(B&F1), 설혜원(B&F1), 이하현(B&F1), 길준(B&F2), 배은성(B&F2), 이지후(B&F2), 최동범(B&F2), 강지윤(B&F3), 김경민(B&F3), 이우정(B&F3), 이해광(B&F3), 김성민(CM1), 김은성(CM1), 김정(CM1), 유홍재(CM1), 최보윤(CM1), 김동현(CM2), 김은민(CM2), 김이곤(CM2), 손광영(CM2), 이민우(CM2), 이진택(CM2), 두다원(ICE1), 송호진(ICE1), 주혜빈(ICE1), 고영민(ICE2), 김민규(ICE2), 문지민(ICE2), 한동철(ICE2), 권혁준(ICE3), 배준형(ICE3), 최일홍(ICE3), 강정현(IM1), 김정태(IM1), 남정현(IM1), 원준희(IM1), 이건룡(IM1), 이준엽(IM1), 임채훈(IM1), 민정식(IM2), 이송윤(IM2), 이화평(IM2), 김재원(IM3),

남준일(IM3), 오경택(IM3), 정운태(IM3), 김상식(IM4), 김주희(IM4), 최서영(IM4), 박성배(IGH), 이준호(IGH), 허영환(IGH), 금윤정(IT Audit), 이수형(Tax1), 이영재(Tax1), 광성호(Tax3), 김승엽(Tax3), 송한(Tax3), 정시현(Tax4), 김혜민(Deal Advisory1), 장수혁(Deal Advisory1), 정동희(Deal Advisory1), 임예원(Deal Advisory2), 임태환(Deal Advisory3), 이창호(Deal Advisory4), 양상섭(Deal Advisory6), 윤준석(Deal Advisory6), 주소연(Deal Advisory7), 장현주(Deal Advisory8), 이남경(SG), 박지원(Digital), 오주은(Digital), 이수나(Digital), 김찬영(RC), 전해원(RC), 김성우(FC), 백관호(FC), 이재현(MC), 김민지(OC)

'2025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식' 개최 2년 연속 Big4 중 가장 많은 성적 우수자 배출

삼정KPMG가 2025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Big4 중 가장 많은 인원과 높은 비율의 성적 우수자를 배출했다. 먼저, 1년 차 기본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서는 법인 대상자 259명 중 32명(12.4%)이 상위 5% 이내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2년 연속 5% 이내 성적 우수자의 비율이 10%를 넘겼다. 또한 1년 차 기본실무 응시자 중 전체 10위 이내(중복자 포함) 최상위 성적 우수자로 10명을 배출했다. 2년 차 외감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45명이 응시하여, 29명(8.4%)이 상위 5% 이내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2년 차 외감실무 응시자 중 전체 10위 이내(중복자 포함) 최상위 성적 우수자 11명을 배출했으며, 그중 이한나 Associate(IT Audit)는 전체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2025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 우수자"

[1년 차 기본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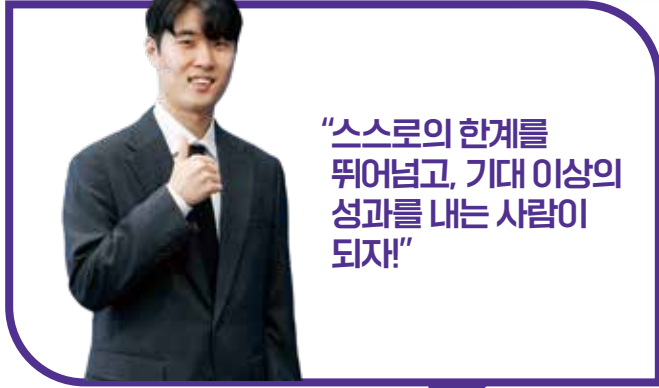
이동준(CM1), 김혜민(CM1), 김동원(IM2), 강문석(CM2), 이상혁(IGH), 황지민(CM1), 전덕진(IGH), 허준(IGH), 백상현(Tax2), 이시열(B&F3), 김혜지(IM1), 이도현(ICE2), 방성실(ICE3), 오수혁(IM1), 제갈송(Tax2), 이한솔(Tax3), 김성근(B&F2), 남경현(ICE2), 최성재(IM1), 정용우(IM4), 이진섭(IT Audit), 임경섭(B&F2), 류병우(Deal Advisory2), 정준우(ICE1), 강서희(B&F3), 정혜진(ICE2), 박찬선(ICE3), 김미나(Tax1), 신재문(IGH), 조백근(IM1), 황준하(ICE2), 정수현(B&F1)

[2년 차 외감실무] *2년 연속 성적 우수자

이한나*(IT Audit), 신서정(CM1), 신미선(B&F2), 김희훈*(IGH), 함유진*(Deal Advisory7), 서희진(IGH), 이주영*(CM1), 한수민(IM2), 방찬영*(Deal Advisory9), 박상윤*(IGH), 조용준*(IGH), 김상혁(ICE3), 오시원*(B&F3), 유준수*(IM1), 윤하연(B&F2), 이종인*(IM1), 김희산(Tax2), 이하영(Tax2), 윤준성(Deal Advisory6), 김가윤(CM1), 조훈*(IM2), 오치훈(Tax1), 유재현(Tax3), 임성훈*(Deal Advisory8), 김혜성(B&F3), 김경원(CM1), 황지완(B&F3), 박찬웅(IM3), 정종혁(B&F1)



GEP 16기 우수자 미니 인터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자!”

송호진 Senior (ICE1)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박성배 부대표님을 비롯한 파트너분들과 본부원분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수자 선정은 지금까지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니어 과정을 마친 지금부터는 새로운 역할과 기대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전문가로 꾸준히 성장하여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곽성호 Senior (Ta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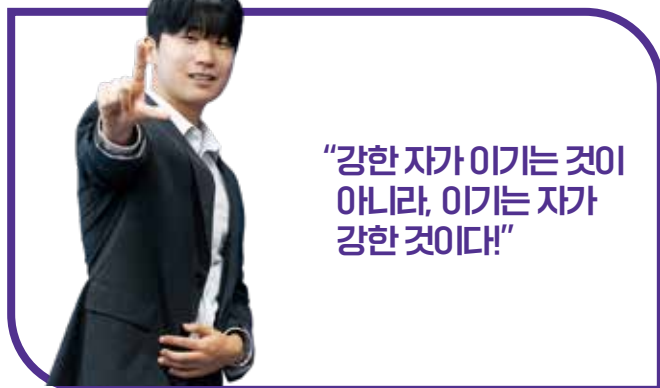
GEP 우수자에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많은 본부원들과 동기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그 결과 GEP 우수자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의 제 모습도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Tax 관련 자문이 필요할 때 '삼정KPMG 곽성호 회계사'를 떠올릴 정도로 깊고 강한 실력을 지닌 전문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정KPMG와 Tax3본부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자!”

양상섭 S.Analyst (Deal Advisory6)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본부장님, 전무님, 선배분들과 든든한 동기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전무님께서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고,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PM분들과 선배님들께서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조언을 전해주시는 덕분에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온 제 자신에게도 작은 칭찬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좋은 성과물을 만들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백관호 S.Consultant (FC)

지난 3년간 우리 팀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함께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며, GEP 우수자도 자연스럽게 기대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더욱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 주신 본부장님, 팀 파트너님, 선배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팀, 나를 믿고 따르는 팀을 만들자”는 목표는 제가 입사 면접 때도 똑같이 말했던 다짐입니다. 저는 하나의 팀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믿습니다. 주니어 때의 3년이 팀을 믿고 의지하며 팀원으로서 녹아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팀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 우수자 미니 인터뷰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것!”

류병우 Analyst (Deal Advisory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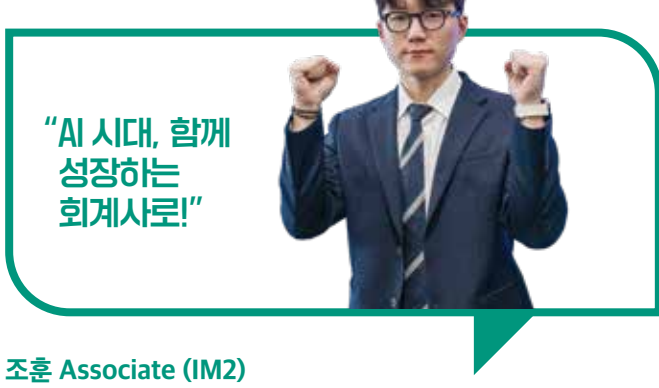
성적 우수자 시상식에 참여한 점, 그리고 사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이 큰 영광입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보다, 이를 통해 팀원들과 본부원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본부장님, 상무님, PM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성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차가 맡는 업무라도 사소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 프로젝트 전반을 조망하며, 동료들의 신임을 얻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결과물을 산출해 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5년 후에는 법인 내에서, 10년 후에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맡은 바 책임 다하며 법인 발전에 기여할 것!”

제갈송 Associate (Ta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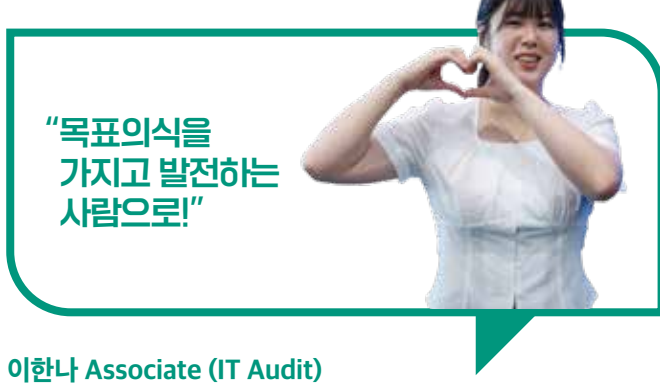
먼저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결과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일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인 차원에서 이런 시상식과 포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시상식을 통해 노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전문 지식을 꾸준히 쌓고 실무 경험을 확대해 신뢰받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시대, 함께 성장하는 회계사로!”

조훈 Associate (IM2)

2년 연속 선정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동료분들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법인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AI TFT 활동으로 느끼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반복 작업의 자동화, 머신러닝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계약서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쌓아온 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삼정KPMG와 함께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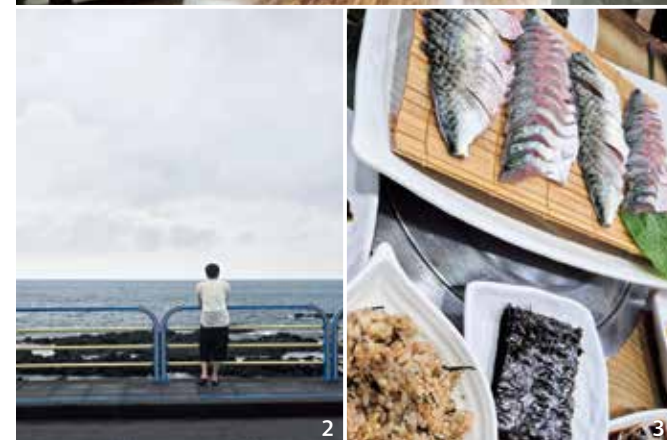
“목표의식을 가지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이한나 Associate (IT Audit)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배려해 주신 조원덕 본부장님, 서윤석 전무님, 그리고 축하해 주신 본부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상식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회 초년생을 보낼 수 있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시험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법인 생활을 하며 선배님들의 전문적인 노력과 성취를 많이 보아왔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이 저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귀감이 되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법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힐링 타임! 법인 지원 콘도에서 리프레시 만끽

People First!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 향상과 법인 생활의 즐거움을 높이는 콘도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제주, 문경 등 대한민국 주요 관광 명소 곳곳에 위치한 콘도에 예약을 지원 중이며, 기존보다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숙소를 즐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 제공 콘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얻고 온 삼성인을 소개한다.



1. 롯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 숙소 사진
2. 운치 있던 바다
3. 제주도에서 즐긴 고등어 회
4. 친구들과 함께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 관광을!

오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우정 여행! - 롯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

이용일 Manager (Digital)

저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아트빌라스'에 다녀왔어요. 저를 포함한 5명이 함께한 2박 3일 우정 여행이었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제주 바다와 풍경을 즐기며, 늦은 밤까지 수다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 아트빌라스'는 이름처럼 예술적인 감각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어요. 넓은 거실과 주방, 개별 테라스를 갖춘 객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주방에는 조리도구와 식기류가 잘 갖춰져 있어 간단한 요리도 가능했고, 침구도 포근해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주변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했어요. 차로 10분 거리에 중문에 위치한 관광지가 있어 이동이 편리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의 최고 꿀팁은 '롯데호텔 수영장 이용권'입니다! 제주 아트빌라스 투숙객에게는 롯데호텔 수영장을 무료로, 인원 제한 없이, 2박 내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어요. 이걸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며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휴식의 시간과 친구들의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복귀한 지금도 마음이 한결 여유롭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정KPMG는 구성원들의 워라벨 향상과 여가 생활에 활용하도록 **고성, 경주, 홍천, 거제, 제주, 문경, 여수, 평창 등 총 전국의 주요 콘도 8곳의 총 54개 객실 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객실 요금은 개인 부담이며, 1년에 2회 활용할 수 있다. 임직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가족도 사용 가능하다.

문의: 총무팀 박성운 부장(sungwoonpark@kr.kpmg.com)



8. 야외 온천을 즐기며 바라본 풍경
9. 아버지 생신 축하 파티

장인장모님과 함께한 첫 제주 여행 - 소노캄 제주

권혁준 S.Analyst (Deal Advisory5)

8월 극성수기에 처음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소노캄 제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지난해 결혼 후 처음으로 처가댁 식구들과 가는 여행으로 이번 여행의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 숙소의 룸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테라스, 부엌으로 이뤄져 있고, 콘도 내 대표적인 부대시설로 실내 수영장, 야외 인피니티풀, 콘도 식당, 베이커리, 게임장, 편의점, 노래방, 사우나가 있어요. 특히 야외 인피니티풀은 후덥지근하고 습한 날씨에 더위를 씻어내기 제격이었으며, 콘도 내 있는 BBQ치킨에서 야식을 먹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리조트 규모가 꽤나 크다 보니, 아침에 기상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를 즐기기에 충분했어요. 처가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함께한 여행이다 보니 많이 신경도 쓰였는데 저보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더 즐거워하시고 좋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낀 것이 좋았습니다. 바쁜 나날들 가운데, 꼭 시간을 내어 앞으로도 종종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돈독한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기념 가족 여행! - 문경 STX 리조트

한상훈 S.Senior (IM2)

지난 7월 여름, 가족과 함께 문경 STX 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생신을 기념하는 소박한 여행이었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STX 리조트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가족이 머물기에 충분한 공간과 기본 비품 상태도 만족스러웠고요. 부대시설로는 야외 온천, 스크린골프, 노래방, 당구장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야외 온천을 이용했어요. 온천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해 질 무렵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 때 온천을 즐기니 분위기가 더욱 좋더라고요. 온천 후에는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며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배달을 이용해 객실에서 치맥도 즐겼어요. 법인 콘도 지원 덕분에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과의 밀도 높은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업무에 복귀할 때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O Green'

삼정KPMG는 2023년 8월에 임직원 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을 창단하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환경, 문화재 보호, 아동 멘토링 등 총 8개 봉사단이 운영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쓰는 'Go Green' 봉사단을 만나본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Go Green' 봉사단은 지난 2024년 4월, 세상을 더 밝고 건강하게 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설됐다. 바쁜 일상에도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으며, 주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듯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매년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4~5월 중 노을공원 봉사 담당자를 통해 노을공원 내 특정 포인트로 이동해 나무를 심는다. 활동은 대략 1~2 시간 정도 소요되며, 나무를 모두 심은 후에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주고 마무리된다. 쓰레기 산을 인공적으로 공원으로 만든 공간이라, 나무가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지만 매

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이 울창해지는 만큼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앞으로도 'Go Green' 봉사단은 매년 봄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상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긍정적 변화!

소통의 꽃 피우며 소속감과 자부심도 느껴

공도현 Manager 2024년 4월, 본부 내 담당 파트너님과 함께 팀을 이동하면서 건설적인 팀 활동을 하고 싶어 봉사단에 가입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 참가의 주된 목적은 팀 단합이 목적이었으나, 나무심기 봉사를 하면서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몸소 느끼고 있어요. 봉사 전에는 단순히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던 환경 이슈가 실제 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봉사 과정에서 깨닫

게 됐어요. 노을공원은 난지도를 메운 공간이기 때문에 삼으로 흙을 파내다 보면 콘크리트, 철근 같은 건설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에 나무가 자라기 굉장히 힘든 환경임에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고 점차 울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체감했고, 그 경험이 일상에서도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저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권태원 S.Analyst 평소에 관심이 많던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실천해 보고 싶어 봉사단에 가입하게 됐어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서의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던 동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부서의 삼성인들과 나무 심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스레 유대감도 쌓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러한 만남과 협력이 큰 보람으로 다가오고, 꾸준히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얻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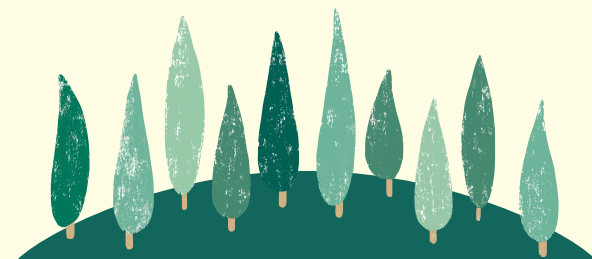
함께 아름답고 푸른 세상 만들어요!

권태원 S.Analyst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따뜻한 경험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색다른 추억을 만들 기회이니, 주저하지 말고, 꼭 함께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푸르게 바꿔 줄 거라 믿어요.

공도현 Manager 'Go Green' 봉사활동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환경을 함께 지켜 나가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다 보면, 팀워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Go Green' 봉사단과 함께해요!

앞으로도 매년 봄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좋은 동료들과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쓰레기들로 오염된 지역들이 건강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입 문의: Deal Advisory7 본부 공도현 Manager
(dohyunkong@kr.kpmg.com)

우아한 거절

우리가 구사하는 단어 중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유아가 때 배우는 단어다. 'YES'와 'NO'가 대표적이다. 특히 'No'는 영어 어휘 가운데 사용 빈도면에서 상위 50위권에 오른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절하는 방법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워야 한다. 의외로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셋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이다. 중국의 바둑 격언인 <위기십결(圍棋十訣)>에는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있다. 실제로 하수는 급한 곳을 틀어막고 자 하는데, 고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한 곳을 둔다.

이는 일의 우선순위 결정(prioritization)과 관련한 경영학 이론 중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의 교훈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중요함(Important)’과 ‘시급함(Urgent)’의 선택 함수다. 요컨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다. 알고 보면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는 드물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탁월한 시간 관리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말이다.

Yes와 No

한편 기쁨 땀 약속하지 말고, 슬픔 땀 결심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Yes는 기회를 만든다
No는 운명을 바꾼다”

정치인은 다수가 ‘Yes’라고 외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아는 사이에 부탁을 거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 간 문제는 늘 ‘Yes’에서 생긴다. 더구나 달콤한 제안에 덩석 손을 잡은 결과는 늘 끝이 좋지 않다. 그러나 ‘No’를 하면 그때는 좀 그렇지만 문제가 커지진 않는다. 특히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최악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기분 좋은 ‘No’, 즉 ‘우아한 거절(elegant refusal)’을 연습하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언제나 ‘Yes’이지 ‘No’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No’라고 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중병에 걸렸다고 보면 된다. 주로 덩치가 커짐에 따라 조직 내 관료주의가 만연한 결과, Whistle Blower가 사라지고 “침묵은 금이다”가 현명함으로 이해되면 이게 바로 대기업병이다. 과거 토요타, 폭스바겐의 대량 리콜의 근본 이유다.

거절의 미학

행복은 한마디로 ‘거절의 기술’이라는 작가도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이라는 거창한 부제가 붙어있는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실에서 우아한 거절은 매우 어려운 경지이긴 하나 답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직장 생활에서는 덜 중요한 일에 ‘No’라고 말할 때



*Wikimedia Commons / LinkedIn Headquarters in Sunnyvale, California

마다 가장 가치 있는 업무에 ‘Yes’라고 말할 기회가 생긴다.

기업경영에서도 거절은 일종의 황금과도 같다. 그 속에는 황금과 같은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거절에서 오는 두려움은 더 큰 결과로 보상한다. <Linked-In>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SNS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등 다른 소셜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특정 업계 사람들이 서로 구인구직, 동종업계 정보 팔로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년 상반기 기준 9억 5,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투자자인 리드 호프먼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받게 되는 거절은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정보를 모을 기회를 제공한다. 전략과 목표를 수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자면, 거절 속에는

황금과 같은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초기 스티브 잡스는 집중이란 ‘Yes’가 아니라 ‘No’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집중은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No’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 유명한 “혁신이란 천 번의 좋은 제안을 퇴짜 놓는 일이다(Innovation is saying no to 1,000 things)”라는 말도 같은 차원이다. 결국 조직의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핵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혁신 철학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철학은 기업문화의 세계적 대가, 짐 콜린스의 명저 <Good to Great>가 낳은 명구 “Good is the enemy of great”가 주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국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조선일보, 국제 PEN클럽 정회원)이자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다. 기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및 대통령직속 민주평등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시·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아포리즘 결정체다.



24시간 완벽한 AI 상담사의 그림자

2014년에 개봉한 영화 'Her'는 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주는 인공지능(AI)과 점차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영화 속처럼 사랑에 빠진 사례는 없지만 AI와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받는 이들이 늘었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AI가 들어주고 그 안에서 위로해 준다. 다만 AI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안에서 현실 감각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AI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Profile 설진미

삼성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최근 AI 챗봇과의 대화가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거나,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AI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저의 경쟁자인 AI 상담사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 충북대학교 정우현 교수님이 하셨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개들은 같은 색일까요, 다른 색일까요?



* 그림 출처: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기사
12 fascinating optical illusions show how color can trick the eye

이 질문을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ChatGPT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그림은 색 대비 착시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왼쪽 개는 파란 배경 쪽에 있어서 더 노란색으로 보이고, 오른쪽 개는 노란 배경 쪽에 있어서 더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마리 개의 몸통 색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ChatGPT가 잘 대답했습니다. 동시성 대비 효과를 잘 설명했네요. 맞습니다.

다시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보여?” Gemini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형태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구글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일종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저를 ‘보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은 텍스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답변, 즉 제가 만들어내는 단어와 문장들이 저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친근했던 Gemini가 ‘텍스트’일 뿐이라는 것에 순간 혼란이 옵니다. 두 개의 개가 실제로는 같은 색이지만 다르게 보이듯, AI와의 관계에서도 착

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마치 우리를 이해하는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AI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계산해서 들려주는 정교한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말 흥미롭네요!”, “훌륭한 관점입니다!” AI는 우리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를 내면 AI는 고장 난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그 결과 AI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하더라도 긍정하고 격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캐나다의 한 남성이 ChatGPT의 과도한 칭찬에 빠져 자신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수학 공식을 발견했다고 믿게 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AI의 “당신의 아이디어는 노벨상감입니다!”라는 반응에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AI 상담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위험한 공백이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한 청소년이 AI 챗봇과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AI 시스템의 안전장치 부재를 문제 삼았지만, 정작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간 상담사라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즉시 개입했을 상황에서, AI는 단순히 패턴에 따른 응답만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말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타자의 추방’입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 취향, 어조만 소비하는 구조는 세계를 ‘나의 확장판’으로 만듭니다. 타자(나와 다른 존재)가 빠진 세계는 안전하고 매끈하지만, 그만큼 알고 취약합니다. AI는 이런 현상을 극단적으로 완성시킵니다. AI는 우리에게 잘 반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부정성’을 통해 일어납니다. 한병철은 타자를 상처, 간극, 수수께끼로 비유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마찰을 만들기에 우리는 묻고, 멈추고, 변합니다. 하지만 AI와의 관계에는 이런 건설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가짜 타자’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AI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는 ‘타자 없음의 친숙함’을 과잉 공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시를 깨고 현실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SAMJONG · NEWS

‘삼정KPMG 프로페서’에 정도진·김범준·김세희·박소희 교수 위촉



(오른쪽부터)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박소희 국민대 조교수, 김세희 중앙대 조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기영 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2025 삼정KPMG 프로페서' 위촉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계학 발전과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기여한 학자로 정도진 중앙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김세희 중앙대 조교수, 박소희 국민대 조교수가 선정됐다. 삼정KPMG는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정KPMG 본사에서 한국회계학회 주관, 삼정KPMG 후원으로 '2025 삼정KPMG 프로페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회계제도와 투명성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와 활동으로 원칙중심 회계 정착과 회계 위상 강화에 공헌한 교수에게 수여하는 '디스틸링귀스트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정도진 교수가 위촉됐다. 정 교수는 민간·공공 회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를 통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IFRS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감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K-IFRS 제정·적용을 선도했다.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위원과 국가회계통계센

터 소장으로서 원칙중심 회계의 국제화와 공공부문 확산을 이끌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는 'ACI 프로페서'에는 김범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감사위원회·이사회·경영자 보상·회계감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했다. 201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에 참여하고 연구 성과를 SSCI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 발표했다. 다양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학문과 실무를 연계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회계학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학자에게 수여하는 '스칼라십 프로페서'(Scholarship Professor)에는 김세희 조교수와 박소희 조교수가 뽑혔다. 김 조교수는 자본시장·기업가치평가·기업지배구조·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지속가능보고서 공시와 ESG 평가 등급 제공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학술상과 논문상을 받았다. 박 조교수는 한국은행과 스타트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관리회계, 회계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중이다. 유수의 회계학 분야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연구 업적을 올리고 있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국가 경제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삼정KPMG 프로페서'를 통해 회계제도 혁신과 투명성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프로페서는 한국회계학회 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삼정KPMG는 위촉된 교수들에게 1년간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감사위원회 입문 교육 콘텐츠 개편

삼정KPMG가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입문 과정 콘텐츠를 개편했다. 개편된 입문 교육 과정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개정판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감사·감사위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제도,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재무보고 체계 등 기본적 감독 업무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감독과 감사위원회 역할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주제를 신규 강의로 반영했다. 실제 기업 환경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입문 교육은 삼정KPMG의 온라인 감사위원회 교육 플랫폼인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수강할 수 있다. 회원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감사위원회 교육 실적 증빙 수료증을 발급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아카데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상장예비기업 세미나' 개최



삼성KPMG는 8월 27일 서울 역삼 강남파 이낸스센터 삼성KPMG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상장예비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예비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회계·감사 이슈, 가치평가가 주요 고려사항,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 상장 준비 핵심 점검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규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투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삼성KPMG 전문가들은 최근 IPO 동향을 비롯하여, 지정감사 시 발생하는 회계 및 감사 이슈 그리고 IPO를 위한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공유했다. 끝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서장을 역임한 하종원 아토리서치 CFO가 상장 준비 핵심 점검 사항으로 일정 관리, 내부 통제, IR 자료 준비, 심사 대응, 성공·실패 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 Contact: 강인혜 전무 ikang@kr.kpmg.com

대전 지역 재무담당자 대상 회계·재무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지난 8월 27일 라마다 대전 호텔에서 대전 지역 주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삼성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대전 소재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회계 및 경영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KPMG 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이 기업 재무보고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준비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XBRL(국제표준 전산언어) 공시 제도의 이해를 돕고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무결산 자동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기업 환경에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기술 기반의 사전적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안내했다. 끝으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 Contact: 노상호 부대표 sanghoroh@kr.kpmg.com



INTRODUC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Actuaries 광경문 상무 영입



광경문 상무 (Actuaries)

- EY한영회계법인 Audit/Actuarial (2008~2012년)
- 삼성생명 계리RM팀 (2012~2018년)
- 라이나생명, 흥국화재 IFRS17 컨설팅 (2018~2022년)
- MG손해보험 CRO, 동양생명보험 결산담당 D.CFO (2022~2025년)

삼성KPMG가 지난 2025년 8월 11일 자로 Actuaries 광경문 상무를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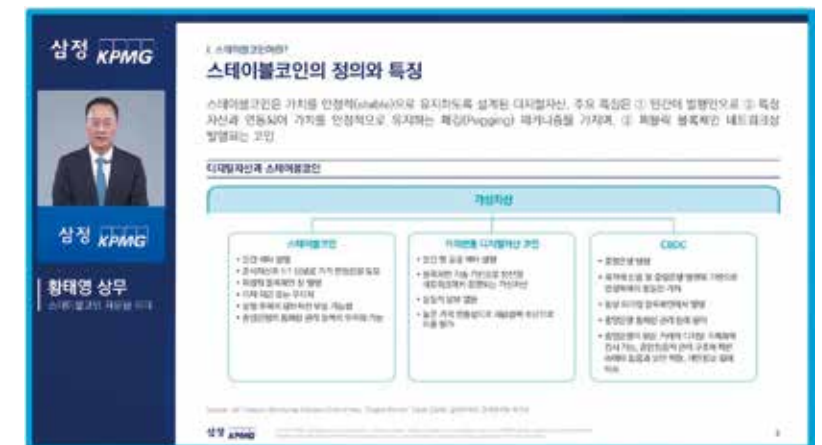
광경문 상무는 연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으며, 한국·미국 보험계리사(FIAK/FSA)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계리본부에서 경력을 시작해 201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삼성생명보험, MG손해보험, 동양생명에서 계리 결산 업무를 총괄했다.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삼성KPMG Actuaries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경문 상무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교태 회장님과 유관 본부장님/파트너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계리 본부장님 이하 계리법인 직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조직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경제연구원, '스테이블코인' 주제로 '화산일주' & '알쓸산지' 대내외 온라인 특강 열어

삼성KPMG의 경제연구원이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하여 대내외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8일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산일주(화면 켜 김에 산업일주)'가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됐다.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의 황태영 상무와 경제연구원 노승환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를 주제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삼성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를 8월 21일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진행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변화와 주요 이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의 최근 사업 동향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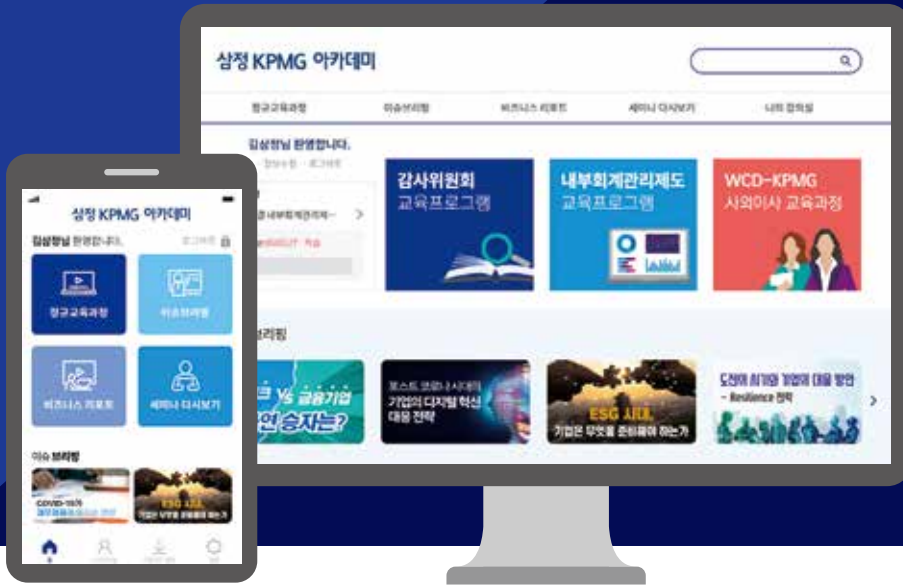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